

이기는 삶

내 생각과 말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

나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기쁨을 만들기도, 슬픔을 만들기도 한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현실로 나타난다. 이 세상은 나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성공이나 실패나, 병이나 건강이나, 평화나 혼란이나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경의 '너의 믿음에 따라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이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되어 당신의 삶을 결정짓는다. 내 생각과 내 말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했던 불평불만의 마음, 부정적인 말들을 깨끗하게 다 지워버려야 한다. 축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 상대를 세워주는 말을 함으로써 삶의 주름이 점점 펴지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고받아야 할 것이다.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다. 내가 한 말의 99%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은 뇌세포를 변화시킨다.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도 변한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 듯 말의 파장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아침의 첫 마디는 중요하다. 밝고 신나는 말로 하루를 열어야. 말에는 각인



말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험

효과(刻印效果)가 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자나 깨나 '감사합니다.'를 반복한 말기암환자가 한 시간에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한다. 미소 짓는 표정으로 바뀌어. 그리고 정성을 심어 말하라. 정성스런 말은 소망성취의 밑바탕이 된다. 불평불만을 쏟아 놓는 사람은 안 되는 일만 연속된다. 투덜대는 습관은 악성 바이러스다. 투덜대지 마라.

열심히 경청하면 상대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린다.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집중하라. 말에는 견인력(牽引力)이 있다. 그러므로 좋은 말, 희망의 말을 하라.

좋은 운명으로 바뀐다. 반대로 나쁜 말을 퍼뜨리면 재앙이 따른다.

성공하는 사람은 말부터 다르다. 그들의 말은 늘 확신에 차 있고, 긍정과 낙관으로 가득하다. 성공했기에 말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 말이 다르기에 성공한 것이다. 성공할 기미가 없는 사람들을 보라. 말에 자신이 없고 부정과 비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늘 남을 탓하고 남을 욕한다.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다. 말을 하면 그 말이 뇌에 박히고 뇌는 척수를 지배하며 척수는 행동을 지배한다. 꾸념이나 험담을 하면 일순간 쾌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 부정적인 말에는 분노라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어 결국 말하는 사람 스스로 불쾌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정적인 말은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좋다.

예일대 존 바그 교수는 "우리 뇌는 '움직인다.' 라는 단어를 읽으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한다. 특정 단어가 특정 부위를 자극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특히 부정적인 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분명히 패배할 상황에서도 승리를 생각하라. 자원이 부족하고 힘이 약한 상황에서도 풍부함과 강함을 상상하라. 자기의 생각대로 된다.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물론 안 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불가항력(不可抗力)이라고 생각하라. 확신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라. 내 복(福)이 그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다. 믿음으로 가득 찬 말들이, 사랑으로 충만한 말들이 당신을 새롭게 할 것이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소망대로 될 것이다.*

속담 속의 영생학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세상에 신이 무진장 많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여! 신은 두 가지 신박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또한 하나님, 신이라고 하면 전지전능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 않나요?

신의 기원은 태초에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점령당한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하여 마귀가 주체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마귀에게 점령당한 아담과 헤와는 죽게 되었고, 그 후손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야 마는 비통한 운명을 맞이한 채로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피와 유전자로 묶여 있고, 세포의 핵마다 23쌍(46개)의 염색체가 있고, 그 염색체는 유전물질인 DNA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아 분명히 조상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하나님 자손이요 하나님의 씨

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종교와 예언서 등을 따라서 믿고 있는 있지만 하나님은 만능인 줄만 알고 마귀의 정체를 모르고 믿고 있으니 무지(無知)가 인간의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다.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과 불교의 '연기설'을 한국 속담으로 바꾸면 '뿌린 대로 거둔다'이다. 더 이상 속지 말고 영생의 발을 얻기 위해 제대로 된 영생의 씨앗을 뿌려보자. 진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승리제단에 오셔서 21일 공부를 해보면 진짜 하나님의 기본 메뉴얼로 답을 찾으시어 복(福)중에 대복을 받을 것이다. 끝이 죽어서 천당 가는 알 수 없는 씨앗이 아닌 영원무궁토록 빛의 세상에서 영생할 수 있는 진짜 씨를 뿌려보자.*

참고은 기자

우리말 바꾸기

‘못’의 띄어쓰기

이번 호에서는 사소하지만 자주 틀리기 쉬운 '못'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못'은 의외로 띄어쓰기 오류가 많은 편이다. 우리말에서 '못'은 주로 동사 앞에 쓰여 '그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을 할 수 없다거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의 뜻을 나타낸다.

'못'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과 기본적으로 띄어 쓰는 게 대부분이다. 단,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즉, '못'이 붙는 경우는 '-지'나 '-다(가)' 다음에 오는 경우다. 부정의 어미 '-지'에 다른 특수 조사가 붙더라도 '못'은 붙여 쓰기로 되어 있다. 이때의 '못'은 보조동사나 보조형용사로 쓰인다.

예) 바빠서 동창회에 가지 못했다.(O)
보다 못해 간섭을 했다.(O)
오지도 못했다.(O)
가지는 못하리라.(O)
눈물 때문에 말을 잊지 못했다.(O)
동사나 형용사로 쓰이는 '못하다'는 "어떤 일을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게 하거나,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부족하다)"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하'의 정반대 개념은 없다. 이 경우에도 붙여 쓴다.

- 예) 노래를 못한다.(O)
- 음식 맛이 예전보다 못하다.(O)
- 술을 못한다.(O)
- 물음에 답을 못한다.(O)
- 잡은 고기가 못해도 열 마리는 되겠다.(O)
- 이 이외의 경우에는 '못'이 부사이므로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 예) 그 일을 못 할 것이다.(O)
- 구경을 못 했다.(O)
- 술을 못 마신다.(O)
- 잠을 톱 못 잤다.(O)
- 초등학교도 못 마쳤다.(O)
- 그는 아무도 못 말한다.(O)*

이승우 기자



구원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secret of Salvation?

救いの秘密は何ですか?

구원의 비밀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The secret of salvation is to be born again through the Holy Spirit.(John 3:5)

救いの秘密は聖霊を通じて甦ることなのです.

영적인 무덤인 마귀 영옥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Without getting out of the spiritual prison of Satan and becoming God again, no one can obtain salvation.

靈的な墓である魔鬼の牢屋から抜け出さずには救いを得ることは出来ません.

하나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마귀영인 '나' 라는 자존심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To become God again, human being must overcome Satan and self-awareness.

神様に生まれ変わる為には魔鬼の霊である「私」という自尊心を必ず勝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사람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Unless human being becomes God, he cannot gain salvation.

人が神様にならなければ、絶対救いを得ることは出来ません.

전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나' 라는 의식이 죄요, 마귀이므로 마귀 옥에 갇힌 하나님(양심의 영, 생명의 영)이 석방되어 나와서 나라는 의식이 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얻은 것이요 부활함을 입은 것이다.

바로 이런 상태가 도통한 상태이다. 구세주, 정도령, 미륵불은 인류 최초로 도통한 분이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마귀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죄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사망의 요소다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선악과다

조희성이긴자께서 전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셨다

. 이것이 도통이다